

## 일본에서의 교환 유학

고려대학교

한수민

처음 일본으로의 교환 유학을 결정한 이후, 어느 학교를 정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차노미즈 여대 같은 경우, 고려대학교에서 파견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최신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학교 위치가 이케부쿠로에서 전철 15분, 걸어서 30분 정도로 도쿄 안에 캠퍼스가 있다는 점에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3년 지은지 1년 정도 된 새로운 기숙사 건물이 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데, 대부분의 교환유학생들은 이곳에서 생활합니다. 일본의 경우 기숙사와 캠퍼스가 떨어진 경우도 많고, 캠퍼스 자체가 도쿄 안에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차노미즈 여대는 지리적으로 정말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살아보니 기숙사도 너무 깨끗하고 도쿄 이곳저곳을 놀러다니기 정말 좋습니다. 타 학교 교환 학생 친구는 매달 교통비가 꽤 들었지만 사실 기숙사에서 캠퍼스가 5분거리라 통학비가 들지 않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치안도 좋은 분교구이니,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나 위험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차노미즈 여대는 유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업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 일본 현지 학생들이 듣는 전공 수업도 수강가능하고, 자신의 본 전공이 아니



어도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증을 위한 수업 등 정말 특별한 경우의 수업에는 예외적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한 학기가 끝난 지금 오차노미즈 여대가 정말 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기회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일본 현지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실제로 일본에 와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 수업, 교류 프로그램, 서클 활동 등 다양한 기회로 좋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습니다. 학교 규모가 고려대에 비하면

정말 작기 때문에 유학생들도 일본의 다른 큰 학교들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이번학기에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10명 가까이 있어서 즐겁게 놀기도 했습니다.

교환학생을 오시기 전에 내가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은 지, 어떤 경험을 얻어가고 싶은 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버킷리스트처럼 일본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몇가지 정했는데 1년의 교환 중 절반이 지난 지금 대부분 성취했습니다. 만약에 정하지 못했다면 여기에서 적응하기 급급해 시간을 헛되게 날렸을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 외에도 도쿄의 이곳 저곳, 근교의 가마쿠라, 골든 위크 휴일에는 후지산을 보러 가와구치코에 가는 등 여행도 자주 다닐 수 있었습니다. 도쿄 근교로 1-2시간 내로 다닐 수 있는 여행지가 많으니 꼭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생활에서 큰 도움을 준 좋은 친구들과 담당 교수님께 감사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